

이성해 대광위원장, “광역교통 단기보완대책 마련에 속도 높여야”

- 23일 수도권 서북권(고양·파주) 지역 광역교통개선방안 논의 -

-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23일(목) 오후 3시 지자체, 사업시행자(한국토지주택공사),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수도권 서북권 지역(고양·파주)의 광역교통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“수도권 서북권 광역교통정책 간담회”를 개최했다.
- 수도권 서북권 지역은 1기·2기·3기 신도시가 소재하는 등 다수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, 추가적인 광역교통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.
-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이 위원장은 “고양과 파주 주민의 출·퇴근 시 겪는 광역교통 불편 사항을 잘 알고 있다”라면서,
 - “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서북권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을 짚어 보고, 해당 지구 주민의 출·퇴근 편의 및 나아가 광역교통 이동권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되었으면 한다”라고 언급했다.
- 이후, 사업담당자 및 지자체로부터 개발지구 현황과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, “수도권 서북부 지역에는 GTX-A 등 다양한 대규모 광역교통사업이 예정되어 있지만, 실제 이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사이 주민들이 겪는 광역교통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중요한 문제”라면서,
 - “현재 집중관리지구를 대상으로 마련 중인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이 이러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만큼 보완대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높여달라”라고 당부했다.
-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“수도권 서북권의 고양·파주 지역은 동일한 광역교통축을 공유하고 있어, 철도, 도로 등의 SOC와 버스 등의

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때 광역교통 측면에서 두 지역 간 상호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”라고 강조하면서,

- “현재 진행되고 있는 「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 수립연구」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서북권 주민의 광역교통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, 진행 중인 광역교통 개선사업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”라고 밝혔다.

2023. 2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